

규모보다 내실다져 제값받기 노력



△ 초로부터 부회장 전신열, 경리 박경순, 회장 김덕현, 총무 이광식씨

전국적으로 양계인의 단체는 크개는 60~70여명, 작게는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상호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닭을 모체로 하여 맺어졌기 때문에 계우회(鷄友會)란 명칭으로 통하고 있다. 지역마다 회원들의 양계사육규모는 각기 다르지만 이곳은 1만수 규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송탄시, 안성, 둔포, 아산의 채란업자들의 모임체인 평택계우회는 17년전인 1973년 12월 채란양계인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평택에는 본회의 분회가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나 회원간의 유대관계가 점차 약화되어 분회조직이 본회로부터 자동제외되는 비운을 낳기에 이르렀으나 다시 1989년 9월에 평택계우회(회장 김덕현)를 중심으로 33명이 일차단결하여 분회를 다시 재조직하기로 하였다.

이곳 평택분회는 대부분 8천수에서 3만수 안팎의 채란업자들이 모여 있다. 농장경영을 자가노동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고충을

쉽게 이해하는 탓으로 계우회가 조직된 후 17년간 매월 1회씩 개최되는 월례회를 거른적이 없다고 김덕현회장은 단합을 자랑하고 있을 정도로 운명이 잘되고 있다.

단체의 활성화 원동력은 회원들의 관심 즉 참여의식이라고 볼 때 평택분회는 내실있는 채란업자들의 단체라고 불리울 만하다.

이곳 평택분회의 특징은 매월 2회에 걸쳐 모임을 갖는데 1번은 월례회로 채란양계를 하는 회원간의 모임으로 월별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1번은 친목회로써 양계인 뿐 아니라 축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 이때는 노계를 처리하는 상인까지도 참여를 하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채란계 농장에 산란율이 저조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평택분회 회원들은 산란율 저하 문제로 고충을 겪는 회원이 없다고 한다. 가끔 부화장에서 분양된 특정 품종이 육성 후 산란율이 저조한 때가 있는데 이는 환우종계에서 생산된 품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회원 1인당 25만원씩 출자하여 구성된 평택계우회는 회원별로 개인구좌를 만들어 월 3만원씩 운영비를 더 걷고 있는데 모두가 자기네 일처럼 회비를 내주어 운영비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은 개인구좌에 다시 입금을 시켜주고 있다.

신규가입의 경우 1구좌당 1만원씩 책정 10구좌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이미 양계업계의 추세가 계우회와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 역시 유명무실한 양계협회 분회를 계우회가 인계하여 더 애착심을 갖고 양계인 단체로 가꾸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회원들의 의지이다.

단합의 힘은 공동구매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전구는 물론

소규모 업자로 뭉쳐진 평택분회 회원들의 한결 같은 불만은 양계인들이 단합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참여를 안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서라고 보고 있다.

주로 소규모업자들은 양계업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만 대규모 양계업자들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리경영을 하고 있어 나름대로 얼마간은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인지



◁ 김덕현 분회장

병아리, 사료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는 광범위하게 전체 회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경제사업도 펴 계획을 갖고 있다.

사료의 경우 모사료회사와 계약하여 시험사육 증으로 결과가 양호할 경우 곧 전회원에게 싸게 공급될 예정이다.

대도시를 끼고 있는 평택지역은 환경공해로 인해 양계업이 장기성이 없다고 보여서인지 대대적인 시설투자를 하여 증축하는 농장이 나타나고 있지않다.

계란값도 다른 농장보다 많이 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기 보다는 편안하게 출하하고 심지어는 주인이 그날 계란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않은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품성에 있어서도 주인이 관심을 갖고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같은 양계인이란 연대감을 가져야지 다만 편하게 행동한다고 언제까지 먹고 살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충고다. 규모가 크건 작건 그것은 경영상의 문제이지

평택분회 회원 명단

평택분회 평택시 비전동 628-5 2-6123

순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회장	김덕현	평택군 서탄면 장등1리529	4-7055 62-8383
부회장	전상열	송탄시 서정동 590-179	4-3350 (농장)62-1786
총무	이광식	평택군 팽성읍 합정리143-25	53-1150
회원	천홍현	평택시 동삭2동 61	2-7061
〃	김기운	〃 〃 263	54-5990
〃	이오복	성환읍 수향리 199	4-3057
〃	이우삼	〃 와룡리 289	4-4629
〃	심주	평택시 유천3동	2-2332
〃	양재덕	평택군 고덕면 두릉리 146	4-6973
〃	공병운	평택시 동삭2동 266	54-3066 54-3644
〃	김영희	〃 팽성읍 노와4리 153-2	53-4540
〃	안해식	평택시 죽백1동 91	53-3415
〃	김재욱	평택군 팽성읍 객사리	53-8631
〃	이금영	성환읍 성월리 278	4-2162

〃	한상오	평택시 비전2동 2/2 대성빌라302호	2-9883 (농장)2-0746
〃	정현창	평택군 포승면 도곡리 산55	7-4811
〃	조용욱	평택시 월곡2동 472	53-3012
〃	이규준	〃 죽백1동 94-4	54-0855
〃	김남옥	아산군 음봉면 의식리24-6	4-5776
〃	최예순	평택시 합정동 758-4	2-7110 (농장)2-1522
〃	이근성	〃 죽백1동 88	54-0854
〃	김영택	평택군 청북면 고잔리51-4	53-5515
〃	윤병구	안성군 공도면 용두리 산10-2	53-2481
〃	박종환	평택군 팽성읍 추팔리 50-93	53-4681
〃	박종수	안성군 공도면 용두리283	53-3642
〃	구자은	성환읍 수향리 178-51	4-4213
〃	정성해	안성군 만정리 514-1	53-2222
〃	정송국	평택시 죽백동 50	53-3470
〃	공명석	천안시 신부동 455-1	63-2744 (0418)43-8355
〃	공근석	아산군 둔포면 신양리 236	41-2763
〃	김미록	〃 〃 〃 207	43-4928
〃	공궁석	〃 〃 〃 215	41-3514
〃	공상석	〃 〃 〃 213	41-3741

결코 사업에 대한 보장까지 규모가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수입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향상이 그저 규모 증가만으로 되는 것처럼 만연되고 있는데 종업원 구인난이 심각한 요즘 양계인들은 다시금 경쟁력 향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즉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자동화를 해야 하며 애써 생산한 산물에 대한 제값받기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 손으로 관리하다 보면 농장도 깨끗해지고 그날그날 시세에 민감할 뿐 아니라 구석구석 이용도가 높아져 보다 효율성이 높게 되고 업계 전체로도 단합이 잘 되어 발전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 있던 평택분회를 인수하는 형식이 되었으나 계우회를 중심으로 한 회원들이 조만간 분회 현판식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새롭게 탄생하는 마음이 짐으로 새출발을 하기로 회장단은 회원들의 뜻을 따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작정 농

장규모만 늘리는 일보다 알차게 관리하여 채란양계인들이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해 서로 협심하면서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자기는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끝내 남에게 피해가 되고 결국 자신도 손실을 입는 일은 해서는 안되며 양계산업의 역사로 볼 때 양계인들도 보다 발전적인 양계산업이 되도록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평택분회의 운영방안이다.

□ 취재/김용화 기자